

【故정몽헌회장 1주기 추모, 현대택배 임직원 국토종단 도보행군 실시】



현대택배(www.hlc.co.kr, 대표:김병훈) 임직원들이 8월4일故정몽헌회장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그룹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토종단 도보행군을 성공리에 실시했다.

현대택배 이재복 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7명은 7월31일 06:00 현대택배 대전물류센터를 도보로 출발, 천안·평택·오산·수원을 거쳐 8월2일 19:00 종착지인 서울 구로물류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한사람의 낙오자없이 전원 무사히 행군을 마쳤다. 이들이 걸은 거리는 총185km.

故정몽헌회장을 추모하는 현대택배 전 임직원들의 염원을 대표하여 도보행군에 나선 17명의 행군팀(여직원4명포함)은 불기마처럼 이글거리는 태양과 뜨거운 공기, 달구어진 아스팔트의 열기를 오직 강인한 인내로 맞서 싸우면서, 고인이 생전에 겪었던 아픔과 그룹발전을 위한 염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행군에 임했다.

50이 넘는 나이를 잊고 행군팀을 맨 앞에서 이끌며, 어려울 때마다 팀원들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준 이재복 상무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 고비를 맞을때마다, 비오듯이 땀을 흘리는 팀원들과 뒤에서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현대택배 전 임직원들의 마음을 생각했다"며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준 전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영물류, 팀장워크샵 개최】

제3자물류 전문업체인 삼영물류(대표 이상근, www.sypl.com)는 지난 7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롯데연수원에서 '2004년도 팀장 워크샵' 및 전반기 사업장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원진, 관계사 대표이사, 각본부의 운영팀, 전국 물류센터 팀장과 부팀장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미래지향적 기업문화의 구축'이라는 테마로 박정섭 (사)한국물류관리사협회장, 정락인 비즈넷타임즈 기자 등 외부초청강사의 교육프로그램과 본부별 토론회, 리셉션으로 진행됐다.

【LG유통, 중부물류센터 오픈】

LG유통이 지난 7월 8일 10번째 물류센터인 중부물류센터를 오픈했다.

LG유통 중부물류센터는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산업단지내 5천500여평 부지에 연면적 3천551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수원 이남 경기지역과 충청권, 호남권의 250여개 LG25 점포, LG슈퍼마켓 10개 점포, LG 마트 2개 점포 등의 배송을 담당하게 된다.

LG유통은 중부물류센터가 편의점과 슈퍼마켓, 할인점을 함께 배송하는 종합물류센터로, 공산품과 신선식품, 패스트푸드 등을 동시에 배송하는 국내 최초의 물류센터라고 설명했다.

LG유통 관계자는 "중부물류센터는 총 1만여 상품을 취급하게 되며 디지털 표시기를 이용한 DPS 시스템과 상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이송시키는 크로스도킹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LG유통의 충청, 호남권 출점 가속화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Ex, 홍콩-인천간 항공편 추가로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FedEx (www.fedex.com, 한국대표이사 데이빗 카튼)는 미국 건설교통부로부터 홍콩-인천 간을 운항하는 새로운 3개의 추가 항공노선을 허가 받아, 아시아 지역 항공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노선은 10월부터 추가되는 노선으로, 아태 지역 시장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후 12시까지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홍콩으로 보내지는 모든 종류의 특급화물(IP) 배송서비스를 실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운임환불보장제도외 함께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고객의 화물을 오후 12시까지 배송 약속하여 특히 IT관련 제품이나 기타 고부가가치 상품 등 보다 빠르게 배송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이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FedEx는 현재 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FedEx의 경쟁력을 배가 시키는 한편, 12시 배송 서비스를 위해 FedEx의 인력 충원과 주요 물자 및 인력의 전략적 재배치를 단행했다.

FedEx 남태평양 지역 피터 인(Peter Yin) 부사장은, "FedEx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항노선을 추가하고 12시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서비스 향상은 홍콩 비즈니스를 강화시키고, 주변지역 및 홍콩을 상대로 하는 무역환경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TNET, 온라인 항공화물 포털서비스 구축]

(주)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신동오, www.ktnet.co.kr 이하 KTNET)이 항공사와 포워더간 운송장 정보 교환을 주축으로 하는 ACPS(Air Cargo Portal Service)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7월 1일 발표했다.

ACPS는 항공사와 포워더간 민간 항공 화물 업무인 Master AWB, 화물 운송장 정보 및 화물 예약을 국제 표준인 Cargo-IMP 전자 문서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항공화물 포털서비스이다.

포워더는 화물 예약 및 운송장 정보를 자체 FMS시스템에서 전송하거나 ACPS 웹사이트(www.aircargportal.com)를 통해 입력, 해당 전자문서를 항공사로 전송하면 항공사로부터 예약확인 및 화물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ACPS 활용시 포워더와 항공사는 운송장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데이터 중복 입력으로 인한 인력 절감, 각종 통신 비용 절감 및 업무 처리 시간 절감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실시간 운송 정보 및 각종 세관 도착 정보 등 각종 화물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CPS 첫번째 가입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신 화물시스템(CSP) 도입에 이어 ACPS를 적용함으로써 항공화물 흐름을 주도할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는 8월 미세관 항공 AMS 사전신고에 앞서 ACPS 도입을 추진한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하고 빠른 AMS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대리점과 오프라인으로 처리되었던 화물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졌으며, 화물예약절

차 개선 및 업무처리 속도 개선으로 인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거래 포워더와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과 거래하는 포워더 역시 운송장정보 전산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실시간 화물운송 진행정보 입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인천국제공항세관(세관장 최태욱)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구축,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세관 측은 상시 통관이 시행되면 수입화물 야간통관이 늘어나고 통관에 드는 평균 기일이 현행 1.7일에서 1일로 단축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인천공항은 특급택송화물에 대해서만 24시간 통관체제를 적용해 왔으며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임시개청 신청을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심야통관이 가능했다.

세관은 7월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번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야간 통관시 장수하는 임시개청수수료도 면제한다. 세관 측은 "개항 이후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한데다 상시 통관이 가능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허브 공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구축,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래 중소유통 물류센터, 7월 7일 준공]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래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지난 7월 7일 문을 열었다.

부산에서는 처음 문을 연 이 물류센터는 418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8평 규모로 냉동·냉장창고와 물류창고,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슈퍼마켓협회 중조합연합회가 운영을 맡는다. 국비 9억원과 시비 18억원, 슈퍼마켓협동조합 부담 5억원 등 총 32억 원이 들었다.

이 물류센터 개장으로 유통 단계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물류비가 30%가량 절감, 그만큼 동네 슈퍼마켓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올해 중 25억 원을 들여 영도구에도 물류센터를 세우고 내년에는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다른 지역에도 영세 슈퍼마켓 중심의 지역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증권전산과
“종합전자지불 택배서비스” 업무제휴 체결】**



(주)한진(대표이사 이원영, www.hanjin.co.kr)은 지난 7월 29일 한국증권전산(사장 한정기, www.koscom.co.kr)과 상품구매-전자지불결제-배송관리 연계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증권전산 여의도 본사에서 (주)한진 김영걸 택배사업 본부장과 한국증권전산 정재동 시스템사업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 캘거리~인천 화물노선 개설】

대한항공이 지난 8월 5일(목요일)부터 캐나다 캘거리와 인천간 주 1회 화물전용기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새로운 하늘 길을 연다.

매주 목요일 23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보잉 747-400 화물기는 미국 앵커리지와 댈러스를 거쳐 현지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6시 캐나다 중부 앨버타주에 위치한 캘거리공항에 도착하며, 같은 날인 금요일 아침 8시에 캘거리를 출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10:20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된다.

금번 신규 서비스는 태평양노선을 통해 캐나다 중부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간에 제공되는 유일한 화물전용기 직항서비스로서, 두 지역간 무역 활성화와 고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수송 품목은 신선 식품과 기계 장비, 통신 장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캘거리 현지에서의 화물 판매 및 조업은 에어캐나다가 담

당하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세계 32개국 81개 도시에 걸쳐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총 9개 도시(뉴욕,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앵커리지, 토론토, 포틀랜드, LA)에 화물전용기를 운항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上海亞東國際貨運有限公司」와 전략적 제휴】**



한익스프레스가 국내물류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물류의 새로운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上海亞東國際貨運有限公司」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대중국 자동차관련 부품의 물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上海亞東國際貨運有限公司」은 매출액 1,000억, 자본금 30억으로 중국내 30여개 지방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1급 포워딩 회사로서 향후 TPL사업 및 수출입관련 LCL 카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로써 양사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물류관련시설을 이용한 In/Outbound cargo의 Total Service를 진행하며 중국마케팅 관련 신규업체들과 접촉이 용이해지고 향후 국제적 물류거점으로서의 인천/평택에서 발생하는 화물 Console 및 중국내 통관업무의 능률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국내부품 조달물류뿐만 아니라 한국내 주요업체의 전자부품조달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양사간의 중간 자국내 거래선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업확장을 기대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주)한진 외항해운 부정기 사업 진출】

종합물류기업 (주)한진(대표이사 이원영, www.hanjin.co.kr)이 중국, 일본 등의 주요 PORT를 중심으로 12일부터 부정기 해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국내 연안 해운업체의 선도기업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주)한진은 지난 8월 5일 4,000 DWT(Dead Weight Tonnage:화물선적기능톤수)급 철제품 전용선 2척을 대상으로 부정기 외항해운업 등록을 마치고 근해구역을 중심으로 외항해운사업에 진출한다.

(주)한진은 포스코에서 출하되는 수출용 철제품을 운송하게 되며, 구간별 해상운송 요율은 포스코 수출 전용선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포스코의 국내물류부문을 참여해온 (주)한진은 이번 수출제품 해상운송 참여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내/외항 해운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주)한진은 포스코 철제품외 일반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DWT 5,000 / 10,000톤급 선박을 투입하여 동남 아시아 지역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국내/외 항간 및 제3국간 영업도 병행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도까지 DWT 10,000 / 30,000급 선박을 추가 확보하여 아시아권 전역으로 외항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주)한진은 국내 물류시스템 변화에 의한 연안해운사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 부정기 사업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SAP 코리아, 동부아남반도체 ERP 프로젝트 원백】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SAP 코리아(대표: 한의녕)는 최근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인 동부아남반도체(대표: 윤대근 부회장)가 SAP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부아남반도체의 SAP 솔루션 도입은 기존 타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던 고객사가 공식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통해 SAP의 솔루션을 재도입(원백: win-back)한 첫번째 사례이다.

동부아남반도체의 솔루션 선정 담당자는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솔루션이 반도체산업에 특화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 및 개선점이 지적되었다"며, "철저한 솔루션의 재검증 및 검토를 통해 SAP의 솔루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SAP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SAP가 국내외 반도체 산업군에 속하는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시스템 통합의 우월성 등이 매력적이었다"고 솔루션 선정 담당자는 덧붙였다.

동부아남반도체는 이번에SAP R/3 엔터프라이즈 전 모듈과 HR, BW 등을 도입함으로써 전사 시스템 통합과 원가 절감 및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SRM(공급자 관계 관리) 솔루션의 추가도입과 타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동부전자와의 시스템 통합 또한 고려하고 있다.

SAP 코리아의 한의녕 사장은, "최근 ERP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은 낮은TCO와 업그레이드 용이성, 그리고 구현 방법 및 관련업체의 구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솔루션을 선정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대단히 높은 솔루션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솔루션의 산업 전문성과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전사 시스템 통합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이 같은 원백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엑센츄어의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빅뱅방식으로 이번 달 시작하여 내년 7월경에 끝마칠 계획이다.

【한·중·일 물류표준화 전문가 회의 개최】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한국파렛트협회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산업자원부의 주관으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리며, 동북아 산업표준협력체 구축사업 중 물류표준화 부문의 파렛트를 표준화하고, 이를 관장하는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국제 상설 기구를 창설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각국의 대표단 구성은 파렛트 협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파렛트전문가 1명, 각국 표준협회에서 1명, 국가 규격 제정, 개정관련 정부 담당관 각 1명 등 총 3명이다.



>>승진
우 윤 석 과장
-대통령지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과장 승진